

중기부 - 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창업지원 / 창업초기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지원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필요

1 사업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생활 혁신가를 발굴 및 지원
- (사업내용)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성실 실패시 상환 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예산 및 재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표 1〉 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집행률)			(%)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창업지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636	636	624 (98.1)	518	△118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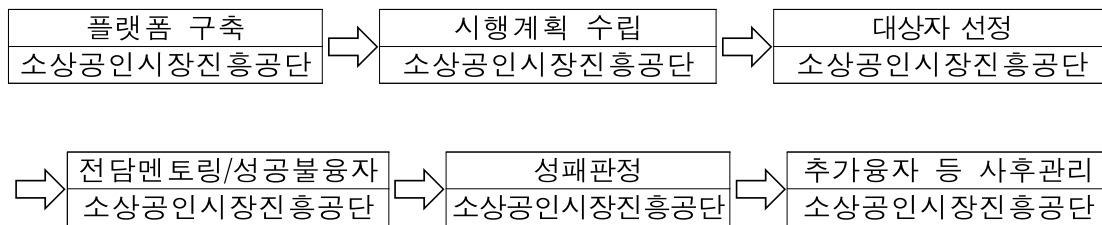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지원)

☐ 주요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연령 불문)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밀업종도 지원토록 개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과 연계를 통해 멘토링을 실시하여 예비창업자의 전문성 강화 도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창업패키지 수료자' 가점 부여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성별) '20년 전체 참여자는 607명이며, 이 중 남성 참여자의 비중은 39.9%, 여성 참여자의 비중은 60.1%로 여성 참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20년 기준 청년층(15~34세)의 참여 비중은 48.6%이며, 중년층(35~54세)은 45.6%로, 청년층이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함

〈표 2〉 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35~54세) 35~39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5,220 (77.2)	7,431 (22.8)	9,051 (27.7)	19,759 (60.5)	5,732 (17.6)	3,320 (10.2)	447 (1.4)
창업초기지원 전체	4,403 (100.0)	2,463 (55.9)	1,939 (44.0)	2,480 (56.3)	1,574 (35.7)	829 (18.8)	217 (4.9)	61 (1.4)
소상공인창업지원	607 (100.0)	242 (39.9)	365 (60.1)	295 (48.6)	277 (45.6)	139 (22.9)	33 (5.4)	2 (0.3)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20년 사업체 607개소 중 고용보험 DB에 연계된 사업체는 97개소이며, 30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16.0%로 나타남
- (산업별) '20년 기준 서비스업 80개소(13.2%), 제조업 17개소(2.8%) 순으로 나타남

〈표 3〉 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 사업체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4,359 (74.6)	13 (0.0)	9,137 (28.0)	205 (0.6)	14,880 (45.6)
창업초기지원 전체	4,403 (100.0)	1,518 (34.5)	13 (0.3)	538 (12.2)	22 (0.5)	959 (21.8)
소상공인창업지원	607 (100.0)	97 (16.0)	0 (0.0)	17 (2.8)	0 (0.0)	80 (13.2)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주2: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DB가 연계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정량지표별 결과

〈표 4〉 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 성과지표

(단위: %, 일)

	지속고용 사업장비율	고용창출 기업비율	고용증감률	임금수준	창업률
창업지원사업 전체	71.0	62.9	53.3	131.5	84.9
창업초기지원 전체	65.3	48.2	-	-	84.9
소상공인창업지원	57.4	15.4	-	-	100.0

주: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 DB와의 매칭률은 '19년 21.7%, '20년 15.4%임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5〉 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창업지원 전체	4.33	4.34	4.19	4.42	4.20	3.97	4.17	4.20	4.45	4.34
창업초기지원 전체	4.29	4.31	4.14	4.34	4.16	3.91	4.14	4.14	4.41	4.29
소상공인창업지원	4.39	4.34	4.29	4.48	4.30	4.08	4.31	4.29	4.56	4.35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표 6〉 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전년도 대비 변화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평가년도 만족도	4.39	4.34	4.29	4.48	4.30	4.08	4.31	4.29	4.56	4.35
전년도 만족도	4.25	4.26	4.18	4.52	4.35	3.82	4.00	4.20	4.34	4.22
전년 대비 변화	+0.14	+0.08	+0.11	△0.04	△0.05	+0.26	+0.31	+0.09	+0.22	+0.13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창업 전 교육 및 유망업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부합하는 사업임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과 성공불용자 지원으로 준비된 창업을 도모

* 성공불용자: 성실경영실패 판정을 받은 사업자의 상환의무 부분 면제로 사업실패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 일자리사업 성과

- 창업지원 실적효과는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창업지원이 창업생존율 제고와 창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미친 효과가 나타나 있지 않음
- '20년 사업공고 후 총 2,536명 신청, 889명 선정, 실제 성공불용자는 576명에 대해 실행

□ 운영의 적절성

- 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66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권역별 선정 평가와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은 바람직함

- 매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매출변화, 종사자 수 변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고 있음
- 그러나 휴·폐업자의 고의실패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운영 장치는 부재함

□ 제도 개선 노력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기분야를 신설함
-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용자 신청 및 지급 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 증대 노력을 통해 성공불용자 적기 지원 노력 필요)에 대한 개선을 위해 용자실행시기를 앞당겨 창업계획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상환의무가 없는 성공불용자의 특성 상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고자 생존기간별 상환의무를 차등화하여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유인을 위해 노력함
- 성실실패 판정시 상환률: 1년 이내 40% 감면, 2년 이내 50% 감면, 3년 이내 60% 감면

4 개선권고

□ 평가 등급 : 개선필요

- 종합적 관점에서 기존 사업을 개편하여 성공불 용자 방식이 아닌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후 용자연결을 통해 가능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직접사업비 없이 추진되는 용자연결형 사업으로 현재의 용자연결형을 유지하면서 멘토 증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 (i) 현재의 사업구조에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추가될 경우, (ii) 현행 융자연결형을 유지하면서 멘토 증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대안 각각이 사업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 과밀업종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과밀업종에 포함되는 창업이라 할지라도 기존 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융합 아이템의 수용 방안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진 지원자 모집을 위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소상공인 창업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에 의한 예비창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우수 창업사례를 모델화하여 이를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